

‘영도 해녀’에 대한 현상론적 연구

김정하 · 이종현

A Research for Youngdo Women divers

Kim, Jung-Ha · Lee, Jong-H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for Youngdo Women divers. Women divers existing only in Korea and Japan are unique because their working way is very rare in the whole world.

From the late of 19century, they came to coastal province of Korean peninsula and Japan out of Jejudo to make more money. At that time, Youngdo is the first place they landed and they became to be recognized as able divers day after day. From that time they had settled and worked in Youngdo as residents.

However nowadays, the number of them is reduced rapidly because the intensity of their labor is too much, then no young women want to be Women divers anymore.

So this thesis is written to record their life-history and working way to preserve them as important part of remains of Korean maritime culture. For the purpose this thesis tried to show the Women Divers' whole culture from their history to their existential value as the object of culture tourism.

1. 서 론

1.1 연구목적과 배경

영도는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조건을 부여받은 곳이다. 그 중에서도 ‘나잠 어업’이라 일컫는 해녀들의 조업이 한반도에서 이곳보다 좋은 환경을 갖춘 곳도

*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한국해양대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드물다. 실제로 영도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의 수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해녀는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여성어업 형태로, 수산업의 역사나 인류학적으로 대단히 연구 가치가 높다. 특히 영도를 비롯한 한반도의 해녀들은 제주도로부터 출가해온 유래나 현지의 정착과정에 우여곡절이 적지 않고, 작업이나 삶의 방식이 특이하며, 최근에는 새로운 관광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해녀박물관’을 건립하는 한편 해녀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해녀들의 복지도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영도를 비롯한 육지의 해녀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이들을 하층민으로 여기는 풍토마저 있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나잠 어업’을 ‘3D업종’으로 여기는 풍조나 해녀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실제 작업에 나서는 해녀 수가 160명에 불과하고, 그 수마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해녀문화는 연구와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므로 이제라도 더 이상 이들의 존재가 줄어들기 전에 해녀들의 문화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존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이들의 내력과 현황, 미래상을 밝히려는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1.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검토

조사결과 현재 영도에는 160여 명의 해녀들이 거주하며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영도주민들조차도 해녀가 영도에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 더 많았으며, 제주해녀와는 별도로 ‘영도 해녀’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현재 영도에서 거주하는 해녀들의 내력과 현황을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우선 현재 영도에서 생활하는 해녀들의 과거사와 현황을 밝히고, 나아가 복지나 미래상에 대해서도 일부나마 고찰해 보았다.

해녀의 과거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해가며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문헌조사는 제주해녀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자서전, 소설, 신문자료 등을 참고했다. 문헌조사 자료 중 선행연구로는 향토민속학적인 입장에서 해녀를 연구한 강대원의 『해녀연구』가 있다. 이 책은 처음으로 제

주해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그 이후 해녀 연구는 김영돈에 의해 심화되었는데, 김영돈은 국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민요조사와 민요 분석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 해녀의 문화를 상당히 자세하게 파악했다. 이외에도 좌혜경의 『일본 쓰가지마 ‘아마’와 제주해녀의 비교민속학적 고찰』과 같이 비교민속학적 관점으로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를 비교한 논문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문들이 제주 지역 해녀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 그 이외의 지역 해녀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육지에 정착한 해녀들에 관한 논문으로는 오선화의 『죽변지역 이주 잠녀의 적응과정 연구』와 양원홍의 『완도에 정착한 제주 해녀의 생애사』 등이 있다. 그러나 영도의 해녀에 대한 기존의 문헌연구는 아직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영도 해녀에 대한 이번 연구에서는 현지조사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현지조사는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표본조사(sample survey)를 실시했으며, 다시 표본조사는 관찰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해가며 수행했다. 표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첫 번째 50대의 가장 젊은 해녀들, 두 번째 60~70세 사이의 비교적 젊고 경력이 오래된 해녀들, 세 번째 80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해녀들로 구분하여 설정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문헌조사에서 부족했던 영도해녀의 과거사적 측면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고,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도 해녀의 미래상에 관한 부분은 문헌자료에서 찾아낸 일본과 제주도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제시했다.

2. 영도해녀의 기원

2.1 제주해녀의 역사

‘해녀(海女)’란 말은 “바닷가 물속에 들어가서 해조류와 패류를 캐는 여인”이라는 뜻의 일본어이다. 해녀에 대한 전통적인 지칭은 ‘잠녀(潛女)’·‘잠수(潛嫂)’가 바른 표현이다. 하지만 ‘해녀’가 이미 학술적으로도 일반화된 단어이므로 여기서는 그대로 쓰기로 한다.

해녀들의 작업방법은 특별한 장치가 없는 ‘나잠어법(裸潛漁法)’이다. 즉, ‘제1

중 공동어장'1)이라 불리는 수심 10m 이내의 얕은 바다에서 소라·전복·미역·돛·우뭇가사리 등을 채취하며, 가끔 작살로 물고기를 잡기도 하는 방식이다. 현재 수산계통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나잠업(裸潛業)'이다.

해녀들에게 특수한 계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해엄치기'와 '무자맥질' 등을 배우다가 15, 16세에 이르면 해녀로 독립한다. 제주도 속담 중에 "해녀는 물 아래 삼 년, 물 위에 삼 년"이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에서 처럼 해녀가 되려면 3년 동안 물속에서 절반, 물 밖에서 절반을 지내며 고된 훈련을 쌓아야 한다. 해녀 생활은 15, 16세부터 60세 전후까지 이어지지만 80세가 넘어서까지도 물질을 하는 해녀들도 있다.

해녀는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다. 그 중 한국의 해녀는 육지의 각 해안과 여러 섬에 흩어져 있지만, 그 대부분이 제주도에 몰려 있다. 제주도의 해녀들은 수도 많거니와 강인한 생활력이나 경제력 등이 제주인의 기질과 산업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주도' 하면 다른 무엇보다 '해녀'부터 연상하게 되었다. 그만큼 제주 해녀는 유명하고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제주신화 「칠성(七星)본풀이」에서 찾아보면 제주 해녀의 기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칠성사신(七星蛇神)」 「칠성부신(七星富神)」이 북 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근처에 표류하다가 상륙했다. 이때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일꾼 해녀가 극진히 숭상하여 모셨더니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다.2)

이를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함덕(咸德)이나 북촌을 해녀들의 발상지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신화이므로 함덕이나 북촌을 해녀들의 발상지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2 제주해녀의 육지진출

제주도 해녀들은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인원이 늘어나는 외에 이런 저런 이유로 도내(島內)에만 머물지 않고 도외(島外)로 속속 진출하기 시작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 ①-4에 의하면, "어촌계에 있어서 공동어장의 주종은 '제1종공동어장'과 '양식어업어장'이다. '제1종 공동어장'은 패류, 해조류 이외에 수산청장이 정하는 정착성 수산물의 채포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3, p.33

이처럼 해녀들은 '섬 바깥으로 물질 나가는 일'을 '배껏 물질 나간다', '배껏 물질 간다', 또는 '물질 나간다'고 말한다. 여기서의 '배껏 물질'이란 제주도 방언으로 '바깥 물질'을 뜻하는 말이다. 물질 나가는 곳이 한반도인 경우라면 특별히 '육지 물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주인들은 바다 건너 한반도를 흔히 '육지'라 하기 때문이다.³⁾ 일반적으로는 '출가 물질'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기록상으로 해녀들은 약 100년 전부터 제주도를 떠나 '출가(出家) 물질'⁴⁾을 나오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가까운 한반도의 남해안 지방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나가사키 등지에까지 출가 물질을 다녔다. 그러나 차차 해녀들은 외국으로는 나가지 않게 되었고, 많은 수의 해녀들이 제주도를 떠나 한반도 각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기 시작했다.

마스다이치지(栴田一二)에 의하면 '출가물질' 지역은 1895년 경상도 부산의 목도(牧島), 일본으로는 1903년에 미야케지마(三宅島)이라 한다.⁵⁾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윤유녕은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아내어 밝힌 바 있다

부산의 한 해조류상인의 요구에 의해 적은 수의 제주 해녀들이 부산 앞 목도라는 작은 섬에서 우뚝가사리를 채취했다. 이들의 첫 출가는 성공적이었고 그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자본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반도 주위 바다속의 해조류의 채취는 그 이전부터 일본 해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작업시간은 제주 해녀들에 비해 짧았다. 따라서 해녀들을 고용하여 이익을 남기는 자본주들은 당연히 제주 해녀들을 선호하였다. 제주 해녀의 한반도 출가 이후 점차 일본 해녀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제주의 해녀들이 일본으로 물질을 떠나게 되는 역현상마저 일어났다.⁶⁾(밑줄 필자)

여기서 제주 해녀들이 제일 먼저 '출가물질'을 한 '목도'란 지금의 부산광역시 영도로 볼 수 있다. 영도는 예전에는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었다는 유래에서 오랫동안 '목도(牧島)'라 불렸기 때문이다.

3)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p.384

4) 해녀들이 봄부터 추석 전까지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물질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김영·양정자, 정광중·좌혜경 역, "잠수의 역사와 출가물질의 요인", 초등교육연구 제8집, 2004, p.6, 재인용

6) 윤유녕, "Toward reviving the myth of woman's land", 제1회 섬학술회의 발표논문, 1997, p.7

1895년 한반도 육지로의 진출 이후 ‘출가 해녀’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1930년에 3,860명, 1931년에 3,950명, 1932년에는 5,078명에 이르렀다. 1932년의 수치는 1932년 제주도해녀어업조합원 총수인 8,862명의 약 57%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중 육지로 진출한 출가 해녀 수는 68%인 3,478명, 일본으로 진출한 수는 32%인 1,600명이었다.⁷⁾

‘출가’한 지역을 살펴보면, 1933년 한반도에는 황해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여러 지역으로 진출했고, 일본으로는 도쿄도, 지바현,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도쿠시마현, 고치현, 가고시마현, 나가사키현 그리고 혼슈의 가장 북쪽인 아오모리현의 시모키타반도까지 진출했다.⁸⁾

이처럼 ‘출가 물질’ 지역이 다양한 까닭은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을 찾아다녔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어장이나 채취할 해산물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해녀들 나름대로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약 반년쯤 지내보는 일을 즐거운 경험으로 여기는 점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른바 ‘전도금’이라 불리는 목돈을 미리 받아 가게에 이바지하는 보람이 컸다.

1925년 무렵 영도에 ‘출가물질’ 나와 있던 해녀들의 수를 알아보려면 조선총독부 내무부장으로부터 부윤, 군수 앞으로 통첩된 공문을 참조할 수 있다. 그 공문에서의 “부산부 근해에 입어할 제주도 해녀 어업조합원수”를 결정한 “부산부 250명, 동래군 650명(기장어업조합 지역 내 400명, 기타 250명)”⁹⁾이란 기록을 통해 대략적이거나 당시 영도에서 입어하던 해녀 수를 추측할 수 있다.

이후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으로 가는 길이 막힘으로 인해 제주해녀들은 육지로 나오게 된다.¹⁰⁾ 육지 연안 곳곳의 ‘출가지’로 나온 제주해녀들은 몇몇씩 민가의 방을 빌어 5~6개월 동안 물질을 하였다. 보통은 3월 초에 제주를 떠나와 9월 초 추석을 앞두고 다시 귀향했다.

하지만 귀향을 하지 않고, 출가지에 정착해 거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육지에 정착한 해녀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2.3 영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삶

2.3.1 이주 및 정착배경

부산제주도민회 제12대 회장 김길두(93세)씨의 말에 의하면, 부산 영도에 제

7) 김영·양징자, 정광중좌혜경 역, op.cit., p.26

8) 김영·양징자, 정광중좌혜경 역, ibid., p.6

9) 강대원, op.cit., p.137

10) 김영돈, op.cit., p.404

주도인들이 처음 정착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인 1885년이라 한다. 당시에 구좌읍에 살던 김완수씨가 처음으로 정착했으며, 1900년 초부터는 부산영도와 경상남도 일원에 제주마을을 집단적으로 형성했다.

그러다보니 1915년 무렵 경상남도 지방의 해녀 수만도 1,700여 명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1970년대까지 더 많은 제주도 해녀들이 영도로 이주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이후 1960년대 무렵의 자료밖에 구하지 못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1962년 이후의 자료에서 보면 1962년 1,356명에 달하던 경남도로의 출가자 수가 이후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제주 해녀의 한반도 출가실태¹¹⁾

*자료 : 제주도 수산과

연도별 \ 구분	계	경 남	경 북	전 남	강 원	기 타
1962	4,090	1,356	1,584	232	787	131
1963	2,215	696	1,320	71	125	3
1964	2,071	378	1,354	108	165	66
1965	1,538	258	1,049	56	113	62
1966	1,903	338	1,103	143	188	131
1967	1,909	788	635	248	129	109
1968	1,093	159	654	84	81	115
1969	1,167	457	216	282	145	67
1970	1,023	239	85	188	-	511
1971	1,230	302	126	284	166	352
1972	917	264	249	158	104	142
1973	867	254	199	238	64	112

이처럼 많은 해녀가 제주에서 육지로 건너오게 된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의 가격이 그 무렵부터 꺾 높아졌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산 일대를 거점으로 해조상(海藻商)들이 점차 불어났다.¹²⁾ 육지 각 연안에는 제주도 연안에서보다 값진 우뭇가사리나 패류가 술하게 자라나는데도 정작 이를 캘 만한 해녀가 별로 없었으며, 있다고 해도 그 기

11) 김영돈 외,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p.443, 재인용

12) 김영돈, op.cit., p.386

량이 부족했다.¹³⁾ 이에 물질할 해녀들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객주들이 부쩍 늘어나 늦겨울에 제주로 건너가 ‘출가물질’을 희망하는 해녀들과 직접 접촉해 적절한 조건을 내걸고 희망자를 모집해 데려오곤 했다. 이렇게 하여 ‘출가물질’에 나선 해녀 중 제주로 돌아가지 않고 육지에 정착하게 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두 번째 19세기말 일본인 ‘잠수기 어업자’의 제주도 진출에 따른 연안바다의 황폐화와 관련이 있다. 일본인 어업자들의 한반도 부근 연안에서의 어업 활동이나 이주는 「한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1876년)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잠수기 어업’은 지금의 우주복과 비슷한 잠수복을 착용하고 바다 밑에서 조개 등을 채취하는 작업방법으로서, 잠수복 안으로 넣은 호스로 선상(船上)의 펌프에서 공기를 들여보내주기 때문에 아주 깊은 바다 속에서도 장시간의 잠수가 가능하다. 1회의 잠수 시간은 해녀들이 보통 50초 정도인 데 비해 잠수기 어업자들은 1시간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잠수기 어업자들이 어자원을 남획하여 제주도연안어장이 황폐화되었다. 이는 제주도 해녀들이 ‘출가물질’을 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세 번째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제주도에서의 환금작물 재배 열풍 때문이었다. 1960년대부터 고구마, 유채를 비롯해 맥주용 보리, 그리고 오늘날까지 농가의 주요소득원이 돼준 감귤이 등장하면서 소득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자 우선 ‘나잠업’을 그만두는 해녀들이 늘어나 ‘나잠업’이 쇠퇴일로로 걷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환금작물 재배로 인해 경작지가 줄어들어 육지로 ‘출가’하는 사람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그 중 상당수가 제주도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육지에 남아 정착했다.¹⁴⁾

네 번째 1962년에 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 때문이다. 위의 표1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62년 이후부터 육지로 ‘출가물질’을 나오는 해녀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1962년 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어촌계가 설립되고, 이전에는 제주해녀들이 물질을 하던 어장이 어촌계의 소유로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자 각 어촌계에서는 제주해녀의 출가를 통제하게 되었고, 오직 해당 마을민만이 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주해녀들은 제주에 남아 해녀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육지의 적당한 어촌에 정착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¹⁵⁾ 따라서 1962년에 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은 해녀들의 출가물

13) 김영돈, "해녀출가와 그 민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p.18

14) 오선화, "죽변지역 이주잠녀의 적응과정 연구", p.20

15) 오선화, op.cit., p.21

질을 제한하고 육지의 각 지역에 정착하게 만든 주요원인이 되었다.

2.3.2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현재 영도에는 출신별, 인구비례로 따졌을 때 제주도 출신이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재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이주자의 2, 3세가 각계각층에서 활약을 하며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주 초창기에는 이주민들의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워 바다를 생활수단으로 삼아, 남성들은 배를 타고 여성들은 주로 물질을 했다.¹⁶⁾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선공동어장'에서는 '정착 해녀'와 '출가 해녀'의 구분 없이 소정의 '입어료'만 내면 어로작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지방민이 텃세를 부리며 공동어장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배분비율을 4~6배 이상 요구하는 분배방식을 강요하며 공공연하게 해녀들의 이익을 수탈했다. 게다가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나오면 "해산물을 몸속에 감추었을지도 모른다"며 잠수복 안으로 손을 넣어 더듬는 추행 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그래서 부산제주도민회에서는 1950년 5월 28일 영도 남항동 항구극장에서 제주도민 400여 명이 모여 해녀들의 권익을 위한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이후 1963년 12월 도민회 임원진과 지방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잠수권익 옹호회」를 조직하여 처참한 생활을 하는 해녀들의 실상을 관계당국에 호소하는 한편, 약 3개월간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비록 영도지구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해녀들에 대한 착취행위를 근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주도지사도 부산을 찾아 해녀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실정을 청취했다. 또 1964년 4월 28일 지방장관 회의석상에서 관계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에게 '해녀 협동조합의 법적 조치'를 건의했다. 이는 비단 영도 뿐 아니라 전국에 분포한 제주도 해녀들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에 전기가 됐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제주도남자에 관한 일반인의 편견어린 시선이였다. 제주 남자들이 가사일과 집안일,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제주 남자들은 일은 안하고 놀기만 좋아한다"는 말이 정설로 여겨지곤 했다.

16) 부성수, "해녀들의 가슴에 새겨진 인간 예춘호와 나", 명분을 지키며 소신에 살며, 일월서각, 1996, p.161

그러나 이는 제주인 입장에서 보면 편견일 뿐이다. 제주 남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오인을 받은 것은 산업화되기 이전 농사를 지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놀이방이나 탁아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해녀들이 일을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이 육아와 가사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달리 생각하면, 제주 남자에게 대한 육지인의 편견은 문화적 차이와 환경적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도 보인다.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 유교의 영향을 덜 받은 측면이 있다. 게다가 육지처럼 농사를 지을 땅이 많지 않아 남자들은 배를 타고나가 조업을 하지 않으면 할 일이 많지 않았고 실제로 조업을 나가는 남자 수도 적었다. 자료를 살펴보면 1930년경 제주도의 어로종사자인 남자는 3,928명인 데 비해 물질을 하는 여자는 8,37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¹⁷⁾ 결국 해녀들이 물질을 나가 얻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육지와는 달리 여성들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제주 출신들은 다소 배타적이어서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들지 않는 이유도 있다. 그것은 육지에 정착한지 50년 이상이 된 해녀들도 제주 방언 쓰기를 고집하여 말투부터가 확연히 달라 외지인이 알아듣기 힘들다. 말투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은 영도지만 이곳은 어디까지 타지일 뿐이고 자신이 돌아갈 곳은 오직 제주도라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3. 영도의 해녀 현황

3.1 영도구 어업인구와 해녀 수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는 현재 49개 어촌계에 약 500명의 해녀가 등록돼 있다. 어촌계별로는 영도구의 남향어촌계와 동삼어촌계 소속 해녀가 각각 8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다대어촌계(55명), 청사포어촌계(47명), 암남어촌계(40명), 송정어촌계(30명), 용호어촌계(25명) 등의 순이다.¹⁸⁾

현재 남향어촌계의 계원 수는 100명이다. 가장 수가 많은 계원은 현재 물질을 하고 있는 80명의 해녀들이고, 나머지는 근해에 조업을 하는 어민들로서 그 수는 20명이다. 동삼어촌계의 경우에는 배를 타고나가서 조업을 하는 계원은

17) 강대원, op.cit.,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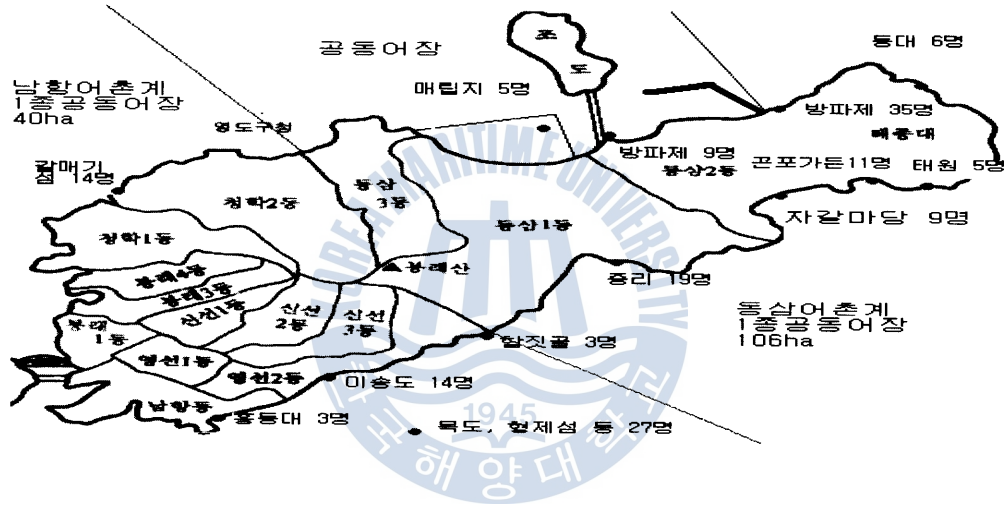
18) 부산일보, 2005년 1월 27일자

70명이고, 해녀 수('도수업'¹⁹⁾ 22명 포함)는 102명이다. 따라서 남항어촌계의 경우 계원 대부분이 해녀이기 때문에 어촌계의 규모가 동삼어촌계에 비해 작은 편이다. 하지만 해녀가 어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삼어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남항어촌계와 동삼어촌계의 해녀 수를 합치면 영도의 총 해녀 수는 160여명에 달한다. 영도 해녀들은 약 14군데에서 물질을 하고 있다.

그 장소를 지도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영도 해녀 수 및 분류(지도)



3.2 연령별 해녀 구성비

영도 해녀 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160(도수업 21명 포함 시 181명)여명이다. 현재 해녀들의 연령층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보인다. 영도에 있는 해녀160(도수업 21명 포함 시 181명)여명의 평균 나이는 66.9세(도수업 포함)로, 가장 젊은 해녀의 나이는 53세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해녀의 나이는 83세이다. 영도구 전체의 해녀 중 60대가 50.3%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33.2%로, 해녀의 83.5%가 60~70대이다.

그리고 현재는 해녀 일을 하는 것이 '3D업종'으로 분류된 상황이고, 해양환경의 변화와 남획으로 인해 수산 자원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해녀 일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 시에서 해녀를 존속시키려면 그에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 맨손으로 간조시에 갯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을 이르는 말이다.

〈표 2〉 영도구 전체 해녀 연령별 구성비 현황

연령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해녀숫자	26명	91명	60명	4명	181명
구성비(%)	14.3	50.3	33.2	2.2	100

〈표 3〉 남항어촌계 해녀 연령별 구성비 현황

연령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해녀숫자	8명	34명	34명	4명	80명
구성비(%)	10	42.5	42.5	5	100

〈표 4〉 동삼어촌계 해녀(도수업 포함) 연령별 구성비 현황

연령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해녀숫자	18명	57명	26명	0명	101명
구성비(%)	17.8	56.4	25.8	0	100

3.3 해녀조직과 어촌계

3.3.1 어촌계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바닷가 마을에 구성된 주민들의 자치 조직이다. 어촌계는 법인 또는 비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2항에 의해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촌계의 구성 목적은 어촌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조직은 총회·총대회·이사회·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어촌계든 잠수회(부녀회)를 따로 둘 수 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해녀의 ‘바다밭’에 대한 행정권과 관리, 어장의 소유권 등이 어촌계로 명시되어 있고, 1975년 12월 31일 제9차 수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제1종 공동어장의 모든 관리권이 어촌계로 위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항어촌계와 동삼어촌계의 1종마을공동어장 구역의 구분은 “동지선(洞支線)”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다. 현재 정해진 동지선은 합짓골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영선동 방향은 남항어촌계의 구역이고, 동삼동 방향은 동삼어촌계의 구역

이다. 남향어촌계의 구역은 40ha이고, 동삼어촌계의 구역은 106ha이다. 남향어촌계의 구역에는 배들의 묘박지와 남향이 포함되어있어 어로구역의 면적이 매우 좁기 때문에 해녀들이 배를 타고 목도, 형제섬 등으로 물질을 나간다.

남향어촌계는 현재 계장 강영식씨(67세)가 이끌고 있다. 남향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조업을 해야 하고, 어촌계 총대의 결의가 필요하다. 계원이 되면 매달 3,000원의 회비를 어촌계에 납입해야 한다.

현재 남향어촌계의 계원은 100명이지만 현재 어업구역이 좁고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계원의 가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도심 속의 항구”로 자주 언론에 소개되는 동삼어촌계는 영도구 구의원을 지낸 바 있는 고감용씨의 주도로 1962년도에 설립되었다. 현재 총 70척의 배가 소속돼 있는데, 그 중 근해어업용 선박은 5척이고, 65척은 ‘연안망’, ‘통발’, ‘복합’ 등 연안어업용이다. 1990년대에는 계원수가 289(비조합원을 포함하면 300명)명까지 늘어난 적도 있으며, 당시 어선의 수가 160척, 해녀의 수가 130명에 달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계원의 수가 줄어들어서 현재 계원 수는 173명이다.

동삼어촌계회원들에게는 남향어촌계에서와 같이 어촌계에 직접 회비를 내지는 않지만, 1년에 20,000원씩 수협에 두 번 납입할 의무만이 있다.

3.3.2 부녀회(해녀회)

‘수산업협동조합법’상 해녀조직은 잠수회라고 하지만 각 지역의 조직에 따라 해녀회나 부녀회라고도 한다. 현재 영도해녀의 조직은 각 어촌계 산하에 있는 부녀회로서 그 구성원은 물질을 하는 해녀로서 어촌계에 가입한 자로 국한되어 있다.

해녀들이 부녀회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첫째, 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결혼이나 장례 등의 대소사를 처리할 때 서로 도움을 주기위해서이고, 셋째, 어촌계 등에서의 전달사항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이고, 마지막으로 입어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부녀회는 부녀회장과 총무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영도 해녀들의 나이가 대부분 많아서 요즘에는 젊은 해녀가 부녀회 회장직을 연임하고 있다. 그리고 부녀회장이라고 해야 “신발비”로 월 5만원을 받는 것이 고작인데, 워낙 굵은 일이 많고 총회를 해도 해녀들이 잘 모이지 않아 서로 말지 않으려는 풍토다.

남향어촌계의 부녀회 회원은 80명이다. 이곳 해녀들의 3분의 2는 제주 출신이다. 남향어촌계 부녀회 회장은 김충애가 맡고 있고, 각 지역별로는 책임자가 나누어져있다. 봉래동해녀 책임자는 김정숙이고, 영선동해녀 책임자는 한덕순,

그리고 청학동해녀 책임자는 한일화이다. 대체로 남항어촌계 해녀들은 고령자가 많다. 그 중에서도 이송도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영선동 해녀들이 나이가 많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청학동 해녀들은 젊은 편이다.

남항어촌계 부녀회에는 영선동해녀의 책임자인 1931년생, 78세의 한덕순을 비롯해 82세인 송순명, 82세인 강효근, 78세인 장유생과 김일룡, 그리고 79세인 우애자 등이 노령기에 접어든 해녀들이다. 그 중에서도 한덕순은 4.3사건 직후에 부산으로 온 사람으로 역사의 굴곡을 슬하에 체험했음을 구술사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²⁰⁾

남항어촌계 해녀들의 물질구역(1종마을공동어장)은 중리, 함지골, 이송도, 흥등대, 목도, 형제섬 등지이다. 해녀들의 물질 구역은 수협이 생기고 나서 공식적으로 정해졌지만, 사실은 자신들끼리 정한 측면이 없지 않다. 봉래동 해녀들은 주로 배를 타고 나가 조업을 하는데, 이유는 영도 안에 적당한 구역이 없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나가는 목도, 형제섬은 구역상 사하구에 속해 있지만 예전부터 어로작업을 해오던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도 물질을 나가고 있다.

배를 타고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배를 모는 선주에게 당일 채취한 해산물의 몇 퍼센트를 주기로 하고 조업 후에 이를 이행한다. 그러나 해녀들로서는 그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신이 잘 아는 제주인 선주를 미리 작업 파트너로 택해 상황에 맞게 대가를 지불한다.

중리 해녀촌은 30여 년 전부터 형성되었다. 주로 나이가 50~70대인 19명의 제주도 출신의 해녀가 직접 물질을 하여 건져 올린 수산물을 판매하며 손님을 맞고 있다.

물질 시간은 오전 7시 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이곳에서 채취하는 해산물로는 돌멍게, 해삼, 돌낙지, 문어, 금수, 성게, 우뚝가사리, 말뚝성게, 고동이 있다. 해녀촌에서도 입구 가까운 지점에서는 청학동해녀들, 그리고 입구에서 먼 뒤쪽에서는 봉래동해녀들이 해산물을 팔고 있다. 이들의 생활력이나 부지런함, 검소함은 놀랄만하여 무려 84세인 “봉래동 할매”도 여전히 판매에 나서고 있다. 개중에 자식을 한국해양대에 보낸 “상국이 엄마”는 남의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다.

이송도의 해녀들은 약 60년 전부터 이곳에서 물질을 하는 한편 장사를 해왔다. 이들은 아침 10시쯤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고 2시쯤에 나와 자신들이 잡은 해산물로 5시까지 장사를 한다. 예전에는 하루에 물질을 세 번 하였지만 지금은 해산물의 양이 줄었고, 해녀들이 나이가 많아 하루에 한번만 물질을 한다.

20) 『제주여성사 자료총서 V』,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4 참조 바람.

이송도의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은 고동, 해삼, 성게, 양장구, 군수, 소라, 멧게굴, 문어, 전복 등 이다.

동삼어촌계가 1962년에 생기면서 어촌계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해녀조합은 어촌계가 생기면서 어촌계 산하 부녀회로 편입 되었다. 2008년 현재 부녀회는 '영도해녀 1세대'라 할 수 있는 모친으로부터 물질을 배운 이정옥이 회장을 맡고 있다. 동삼어촌계 해녀들의 작업구역(1종마을공동어장)은 감지해변, 곤포가든, 태원자갈마당, 태종대등대, 하리방파제, 해양대방파제, 동삼동매립지이다.

그런데, 1978년 경 이 동삼어촌계 작업구역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해양대 앞 부지의 매립으로 인한 보상이 있었는데, 보상액이 당시로서도 불만을 살 정도로 적은 금액이었지만 군부정치 시절이라 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매립으로 인한 보상을 개인적으로 받은 상리해녀들은 그 후 물질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중리에서 어촌계가 생기기 이전부터 물질을 해왔던 청학동과 봉래동해녀들은 동삼어촌계의 공동어장인 그곳에서 지금도 물질과 장사를 하고 있다.

동삼어촌계의 해녀들 중 상리해녀들은 해양대방파제 입구에 탈의실과 '불턱'을 두고 해양대 우측 공동어장에서 물질을 하고 있다.

물질은 아침 9시나 10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난다. 채취한 해산물은 하리에 있는 횃집이나 자갈치시장에 가서 판다. 일반적으로 채취하는 해산물은 금수, 성게, 우뚝가사리, 말뚝성게, 해삼, 고동, 미역 이다.

중리해녀촌은 회장(지역 책임자)을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지만 상리해녀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 62세인 김순여가 7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

4. 영도해녀의 의복과 도구

4.1 의복

해녀의 작업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검은색 고무잠수복이다. 이 고무잠수복은 196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 들어와 일부에 보급되기 시작해 이후로 급속도로 정착되어, 현재는 재래잠수복을 착용한 해녀가 단 한명도 없다.

재래잠수복은 하의에 해당하는 수중이, 상의에 해당하는 물적삼, 그리고 머리에 써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물수건이 있다. 이 세 가지 의상이 잠수복의 한 벌이다. 이 외에도 불턱에서 겨울물질로 인해 언 몸을 녹일 때 보온용을 둘러썼

던 ‘뚜데기’가 있다.

이러한 재래잠수복의 재료는 대체로 광목이었다. 광목은 일명 왜포라고 하는데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서양목처럼 광이 넓은 무명베다. 광목으로 재래잠수복을 제작하려면 먼저 한두 가지 공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뽀뽀한 풀기를 빼어낸 다음 새하얗게 탈색을 시킨다. 잠수의 기호에 따라 흰 잠수복이 아닌 검은 잠수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일장터나 방물장수에 가서, 혹은 동네 잡화점에서 검은 물감을 구입하여 물을 들인다.²¹⁾

재래잠수복을 입고 물질할 때와 고무잠수복을 입고 물질 할 때의 능률과 소득에는 차이가 매우 크다. 재래잠수복을 입고 물질을 하면 물속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최대 한 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그리고 봄·여름·가을·겨울 등 계절에 따라 작업일수가 다르고 작업회수도 달라진다. 이는 재래잠수복을 입었을 경우 수온의 변화에 따라 느끼는 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재래잠수복 착용 시 1, 2, 10, 11, 12월은 바깥 기온이 낮아 1회 작업시간이 30분 정도이며, 그 외의 기간에는 40~60분가량 작업이 가능하였다.

고무잠수복은 재질의 특성상 몸을 안정된 상태로 긴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보온성이 뛰어나 물속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무 잠수복이 꼭 장점만 갖춘 것은 아니다. 고무 잠수복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길어지고, 작업수심이 깊어지면서 어자원 고갈과 해녀의 직업병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선 고무냄새를 독하게 풍기므로 오랫동안 냄새를 맡게 되면 두통이 발생한다. 그래서 해녀들은 뇌신,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매일 먹는다. 게다가 입고 있을 때 몸에 밀착되기 때문에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오르게 된다. 그밖에도 부력이 증가하여 잠수하기가 힘들게 되므로 납덩어리를 차게 되는데 이것이 허리에 부담을 주어 요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독한 약을 많이 먹어서 생긴 위장병, 수압에서 오는 청각장애, 심장계통의 질환은 일반화되어 약물 복용이 보편화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일부 어촌계장이나 해녀 연구가들은 자원 고갈과 해녀의 건강을 위해서 고무 잠수복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며 다시 재래식잠수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녀들 중에서는 하루라도 물질을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21) 남제주군지 Ⅲ권, 남제주군, 2006, p.215

4.2 도구

해녀들이 잠수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는 눈, 망사리, 테왁, 빗창, 정계호미, 골 각지 등이 있다. 이러한 도구는 고무 잠수복을 입는 오늘날에도 모양이나 성능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재래식 형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4.2.1 눈[水鏡]

물속에서 해녀가 사용하는 수경을 '눈'이라고 일컫는다. 『해녀 연구』에서 강대원씨는 제주도에서 물안경이 생긴 시기를 1820년 경 부터라고 보고 있다. 눈에는 작은 눈과 큰 눈이 있는데 작은 눈은 안경알이 두 개인 쌍안경이고, 큰 눈은 좌·우의 두 눈을 1개인 안경알로 덮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해녀들은 처음에는 쌍안경식으로 된 작은 눈을 사용해오다, 1930년 경 부터 전체가 하나로 된 큰 눈을 사용하게 되었다.²²⁾

4.2.2 망사리

망사리는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넣는 녹색 나일론 줄로 짜여진 그물로 된 주머니 인데 테왁 밑에 달려있다. 망사리는 해녀들이 직접 어구점에서 나일론 그물을 사서 만든다. 망사리의 재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은 나일론 실로 만들어졌지만 옛날에는 「미」라는 나무껍질에서 신서란 으로 재료가 변했고, 1917년경에는 남충나무 껍질로 만들어 사용하다가 1927년경부터 처음으로 실로 떠서 망사리를 만들어 사용했다.²³⁾

4.2.3 테왁(두렁박)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채취한 해산물들을 물위에 띄워 보관해 주고, 또한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몸을 가벼이 띄워주는 '두렁박'을 테왁 이라 한다. 해녀들은 테왁에 의지하여 바다에서 전복이나, 소라, 미역 등을 채취한다. 이전에는 두렁박에 구멍을 내서 속을 파내고 구멍을 막은 다음 잘 말려서 테왁으로 사용했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스티로폼 테왁을 사용한다. 스티로폼 테왁은 두렁박에 비해서 부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해산물을 망사리에 넣을 수 있다.

4.2.4 빗창

빗창은 전복을 따는 도구로 길이 25~30cm, 너비 4cm 정도의 납작한 쇠붙이이며 끝이 날카로운 유선형이다. 한쪽 자루 끝은 원형으로 그 구멍에 손잡이 끈

22) 강대원, op.cit., p.85

23) 강대원, ibid., p.86

이 달려 있다. 끝부분에 달린 끈을 손에 감아쥐고 바위에 붙어있는 전복 밑으로 빗창을 집어넣어 위로 제치면 바위에서 떨어진다. 하지만 가끔씩 전복이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빗창이 전복과 바위사이에 끼이면 해녀들은 손에 감고 있는 끈을 빨리 풀어내서 수면위로 올라간다. 욕심을 부려 끝까지 전복을 잡으려고 하다가 질식사하여 숨지는 일도 있다.

4.2.5 정계호미

주로 미역이나 툇을 캐는 낚으로서 농사할 때 쓰이는 호미와 비슷하다. 정계호미의 길이는 약 20cm로 약간 길고 바닷물 속에서도 쇠붙이 날이 자루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날이 있는 쇠붙이를 나무 자루 바깥에 철사로 단단하게 묶은 도구이다.

4.2.6 까꾸리

성게 문어 따위를 채취할 때 쓰이는 도구이다. 까꾸리는 30cm내외의 가느다란 쇠붙이를 12cm 내외의 나무 자루에 박아서 쇠붙이의 끝부분을 더욱 가늘고 7자로 꼬부라지게 만든다.



5. 작업방법

5.1 하루 일정

5.1.1 물질

영도해녀들은 대략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물질을 하고, 오후에는 그것으로 직접 장사를 하거나 근처의 횃집이나 자갈치시장 상인에게 해산물을 판다. 오전 9시경 영도해녀들은 탈의실로 모인다. 그리고 물질을 나갈 준비를 한 뒤 각자 도구를 챙겨서 작업구역으로 이동해서 물질을 한다. 물질이 끝날 때쯤이 되면 마중꾼(대부분 남편)들이 와서 영도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물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도와준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영도해녀들은 이때가 조금 서럽지만 주위의 해녀들과 마중꾼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다고 한다.

영도해녀들은 비가 많이 오거나 파도가 높은 날은 물질을 안 한다. 이런 날에는 아침에 탈의실에 모여서 ‘불턱’에서 쉴 나무들을 옮기거나 평소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한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영도해녀들은 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날이 낫으면 고동 등은 더 많이 나온다”고

말하는 해녀들도 있다.

영도해녀들은 연중 명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물질을 한다. 더러 상리해녀와 같이 12일 동안 물질을 하면 3일은 꼭 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날씨가 허락된다면 매일 물질을 한다. 그래서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자원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다. 영도해녀 자신들도 무분별한 남획이 가져올 피해를 알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워낙 채취하는 해산물 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물질을 주기적으로 쉴 수가 없다고 한다.

5.1.2 판매

영도해녀들은 물질을 끝내고 2시에 물으로 나오면 우선 점심부터 해결한다. 대개 자신이 싸간 도시락을 먹는데 불규칙적인 식사시간 때문에 위장이 나빠진 해녀들이 많다.

영도해녀들의 해산물 판매 방법에는 직접 좌판을 벌여 판매하는 것과 시장이나 횃집의 상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촌계에서는 위탁판매를 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현재 영도에서는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어촌계는 영도해녀들이 직접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고 있다.

영도해녀들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이송도와 같이 14명의 영선동해녀가 물질과 장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채취하는 해산물의 양은 많지 않고 해변가에서 관광객들에게 해삼과 성게, 고동 등을 판매한다.

다음으로 시장이나 횃집의 상인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늙은 해녀들인 경우나 직접 판매하기가 어려운 해녀들이다. 이는 채취한 해산물의 무게가 상당하여 이것을 자갈치시장 등으로 옮겨 가는 일이 늙은 해녀들로서는 힘에 부치기 때문이다. 또 직접장사를 할 수 있는 판매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해녀들은 시장이나 횃집에 해산물을 내다 판다.

5.2 해녀의 기량

해녀사회에도 기량에 따른 계층 구분이 있다. 물질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냐에 따라서 대체로 '하군'·'중군'·'상군'으로 구분된다. 해녀의 계층이 이처럼 구분되기는 했지만, 해녀집단에서 통용되는 말은 '하군'과 '상군'이며 물질을 예사로운 숨씨로 치르는 해녀를 이르는 '중군'이란 말은 흔히 쓰이지 않는다.

5.2.1 초년기

해녀사회에서는 초년기의 해녀를 ‘신출내기’니 ‘하잠수’니 ‘족은잠수’니 하는 명칭으로 부른다. ‘바다’에 대한 지식도 그만큼 부족하므로 이때부터 본격적인 물질 수업에 들어간다.

이들에게는 해녀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똑같이 부과되지만 발언권이 거의 없고, 특히 물질작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웃어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시기에 물질 전반에 대해서 골고루 익히고 습득을 해야만 앞으로 해녀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애기잠수바다’에서 물질하던 시절과 물질기량이 별로 나아진 게 없는 ‘톨파리’도 생겨나게 마련이다. 이후 세월에 따라 물질에 익숙해져 가면 점차 중군이 되고 그 기량이 썩 뛰어나게 되면 상군이 된다.²⁴⁾

5.2.2 청장년기

해녀는 초년기에서 청·장년기로 접어들면서 황금기를 맞이한다. 물질기량도 완숙기에 접어들고 삶도 또한 그러한 시기이다. 해녀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이들도 바로 이 시기의 해녀들이다. 이들은 해녀공동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수적으로도 우세하다. 이러한 해녀들이 온갖 집단 규범을 만든다. 예를 들어 탈의장이면서 불을 쬐는 ‘불턱’만 하더라도 ‘하군덕(하군불턱)’·‘중군덕(중군불턱)’·‘상군덕(상군불턱)’으로 나뉜다. 모든 해녀들이 같은 ‘불턱’에서 불을 쬐 경우라면 으레 연기가 덜 나는 자리에 ‘상군’ 해녀가 앉도록 모시는 게 불문율의 관행이다.²⁵⁾이 시기에 접어든 해녀는 누구나 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손색이 없다.

5.2.3 노년기

나이가 칠팔십 살이 되어서부터 매일 드나들던 바다의 물길이 깊어 보이면 한 번 잠수하기에도 벅차다. 이러한 이유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녀들은 더 이상 상군 바다와 중군 바다에서는 물질을 하지 못하고 애기해녀나 족은해녀나 톨파리가 물질을 하는 갯바다로 밀려난다. 그렇다고 통상 육십을 넘긴 해녀가 다 물질기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서 칠십을 넘기고 팔십 세를 넘어서도 거뜰히 ‘상군’ 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도 있다.

24) 남제주군지 Ⅲ권, op.cit., p.189

25) 김영돈, op.cit., p.93

5.2.4 영도 해녀의 기량

현재 물질을 하고 있는 영도해녀들의 대부분은 중년을 넘긴 노년기의 해녀들이다. 그래서 많은 수의 영도해녀들이 갯바다 근처에서 물질을 한다. 하지만 나이가 젊은 영도해녀들은 상군을 자처하면서 10m정도를 잠수해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상군해녀 중에서 가장 기량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영도해녀는 현재 동삼어촌계에서 배를 타고 나가 '곤포(다시마)'등을 채취하는 강난화(69세)이다. 다른 영도해녀들에 비해서 기량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 까지 잠수를 할 수가 있다.

젊은 영도해녀들이 소득은 '상군'의 경우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이고, '중군'은 150만 원, '하군'은 100만 원 정도이다. 하루의 소득도 '하군'과 '상군'은 5만원에서 20만원 까지 큰 차이가 있다.

현재의 영도 해녀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10m이상 잠수하는 이의 수가 많지 않다. 7, 8년 전인 2000년대 초반 해도 전체의 10%는 상군을 유지했으나 이제는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젊은 해녀들의 개별 수입은 10~30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나이가 많은 해녀들의 수입은 만원에서 7만 원 사이이다.

5.3 영도에서 채취되는 해산물

해녀들은 연중 채취하는 해산물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영도는 예전과 달리 5, 6년 전부터 백화 현상 등으로 어장이 황폐화되어 현재 채취되는 해산물 양이 많지 않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위탁판매를 하지 않고 해녀들이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도에서 해녀들이 채취하는 전체적인 해산물양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영도에서 주로 채취되는 해산물은 다음과 같다. 봄에는 톳, 소라, 고동(제주말로 "보말"), 해삼, 여름에는 미역, 금수, 성게, 군수, 소라, 멧게, 굴, 낙지, 전복 등 다양하다. 가을에는 말뚝성게, 소라, 고동, 양장구(제주말로 "솜"),담치(홍합의 일종)등이 많이 채취 된다. 겨울에는 해삼, 문어, 소라가 많이 채취된다. 전복은 요즘에 거의 채취를 하지 못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채취한다.

동삼동 어촌계 소속 해녀들의 주 소득원은 성게 이다. 하지만 성게들이 천초를 많이 파괴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근해에는 천초가 남아 있지 않았다. 해녀들 사이에서 성게는 수질 오염 때문에 많이 채취 되는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갯녹음(백화현상)이 생겨도 성게는 죽지 않고 다만 성게 알의 크

기만이 줄어들 뿐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지금도 하리 바다는 갯녹음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표 5〉 영도 해녀 월별 중요 채취물

월 별 채취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복	-	-	-	-	-	-	-	-	-		-	-
미역		-	-	-	-	-						
보라성게						-	-	-	-			
해삼	-	-	-	-	-	-						
문어	-	-	-	-	-						-	-
말뚝성게										-	-	-

6. 해녀의 복지 및 풍어기원

6.1 편의시설 및 의료체계

현재 영도에는 160명의 해녀들이 물질을 한다. 하지만 구청 및 시 당국 등에서는 전혀 영도 해녀들의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나마 구청에서 허락해서 지은 탈의시설인 컨테이너 박스를 해양항만청이나 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연간 60~7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영도해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러한 복지 현실은 영도해녀들의 고향인 제주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또한 해녀들의 의료체계도 제주도와 영도의 차이는 매우 크다. 영도해녀들의 나이가 많다보니 그들은 물질로 인한 잠수병, 관절염, 위장병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는 날에는 거의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물질하는 날에는 뇌신, 아스피린과 같은 해열제를 매일 먹으면서 조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영도해녀들에 대한 의료혜택은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협에서 지원하는 국민건강 보험료 보조가 전부이다.

제주도 해녀들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정책적으로 잠수탈의장 보강, 탈의장 운영비 지원, 불우잠수위로, 해녀 건강진단 등의 시설편의와 복지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패조류 투석, 전복종패 살포 및 어장정화 등의 자원조성 및 회복을 통해 이익증진을 시키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창고, 잠수장 제도

운영 및 잠수어업인 진료비 등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²⁶⁾

〈표 6〉 부산시 수협 조합원 국민건강 보험료 보조지급 기준(시행일 2003년 3월 25일)

대상(청구)금액	보조해당월	보조개월수	비고
~10,000원 이하자	1월~12월	12개월	
10,000원 초과~15,000원 이하자	5월~12월	8개월	
15,000원 초과~20,000원 이하자	7월~12월	6개월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자	8월~12월	5개월	
25,000원 초과~30,000원 이하자	9월~12월	4개월	
30,000원 초과~40,000원 이하자	11월~12월	2개월	
40,000원 초과~60,000원 이하자	12월	1개월	
60,000원 초과	-	보조없음	

이제는 영도에서도 해녀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왔다. 이제 영도해녀들은 나이가 50~80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영도해녀들을 방치해 둔다면 앞으로 20~30년 내에 영도해녀들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다음은 『국제신문』에 난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해녀들을 위한 현대식 탈의장이 들어서고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고령화되고 있는 해녀들의 복지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현대식 탈의장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지역 해녀는 32개 어촌계에 소속된 1059명.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이지만 연간 생산액은 74억60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해녀 탈의장은 23곳 중 19곳이 컨테이너를 개조한 가건물일 만큼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중략...

부산시 정계환 수산행정과장은 “오는 6월까지 자치단체와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예산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²⁷⁾

하지만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기사에 실린 것과 같은 지원은 없었으며 어촌계의 계장 및 영도해녀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26) 남제주군지Ⅲ권, op.cit., p.195

27) 국제신문, 2007년 7월 3일자

따라서 말뿐인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영도해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방안을 부산시 및 영도구청은 제시해야 한다.

6.2 풍어제

일반적으로 어촌계에서는 어민들의 안녕과 풍어를 위해 풍어제나 용왕제를 지낸다. 이러한 어촌계 행사가 있으면 영도해녀들은 참가하여 자신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한다. 현재 영도에는 동삼어촌계만이 풍어제를 하고 있고, 남항어촌계는 풍어제를 하지 않는다.

동삼어촌계는 1962년 이전부터 중리산 본산할배를 모시는 풍어제를 지내왔다. 1970년대에 제주해녀가 주축이 되어 동삼1동 ‘웃서발당산’에서 용왕제를 지낸 적도 있지만 불과 4년 만에 사라졌다.

2001년경에는 “협찬금 문제”가 불거져 풍어제를 지내지 않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예를 들어 배가 전복돼 8명이 실종되고 4명이 죽는가 하면 어구 질을 하다 실명이 되는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우환이 들끓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물으니 “용왕제를 다시 지내야 한다”는 답이 나왔다. 그래서 제사를 모시고 본산 할배와 골매기 할매에게 용서를 빈 다음 다시 용왕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용왕제를 다시 지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2008년에 치른 풍어제는 손님들이 약 400명이 찾아오는 등 시끌벅적 하면서도 풍요로웠던 풍어제였다. 동네 어귀에는 만국기가 휘날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분위기였다. 그 위에 2007년까지는 하지 않던 민속놀이체험, 페이스페인팅, 공예품 전시 등을 하였다. 해녀들은 별신굿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당의 부름에 따라 절을 하고 돈을 내놓으며 자신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했다.

하지만 새롭게 실시한 이벤트 행사 등으로 인해 많은 적자가 발생하였다.²⁸⁾ 그 바람에 2009년 이후의 풍어제는 다시 예전처럼 동해안 별신굿만 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8) <표8> 동삼어촌계 제공 ‘2008 동삼어촌계 풍어제 예산내역’

7. 문화상품으로서의 해녀문화

7.1 안정적 조업

해녀문화를 문화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영도해녀들의 안정적인 조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도해녀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수협에서 어린 전복 등을 2, 3차례 방류한 종포사업 밖에 없었다. 게다가 스킨스쿠버들이 해녀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해산물을 밤에 몰래 불법으로 채취해 어자원 고갈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채취량 감소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동삼어촌계장 장상웅은 이에 대해, “구획을 정해 종포사업을 해야 안정적 조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선박의 교통이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안어초사업을 실시하여 유료낚시터, 스쿠버 다이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희망사항도 갖고 있었다. 이것은 태종대 근처에 면허지를 확보해 종포사업을 하고 일정한 기간 조업을 제한하는 식으로 어로자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종포사업과 조업시간을 제한하는 방법 외에도 무분별한 남획을 막아 어로자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금액	세부내역	
구비	계		3,000		
			1,500	민속놀이체험 행사장	
			240	영상 사진 촬영편집	
			200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360	현수막 배너기둥	
			150	풍물놀이 격려금	
			100	풍물놀이 꼬깔구입	
			300	행사안내 팸플렛 제작	
			150	초청장 인쇄비	
어촌계 부담	계		17,969		
			10,275	손님대접 식대	
			6,024	무속인 초청경비	
			720	기념타올제작	
			650	천막 대여	
합계			300	간이화장실 임대	
			20,969		

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해녀들끼리 목계를 정해놓고 조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정월 초하루부터 선달 그믐날까지 달마다 2, 3가지 명절이 있고 그에 따라 행사를 한 날에는 물질을 하지 않는 풍습이 지켜진다.²⁹⁾ 혹은 해녀들의 고무 잠수복의 착용을 금지하거나 물안경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저절로 작업을 오래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자원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지금 당장 영도해녀들에게 강요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의 양이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로자원보호와 영도해녀들의 건강과 수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보조와 더불어 영도해녀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7.2 문화상품화 방안

현재 영도에서 할 수 있는 영도해녀문화의 문화상품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해녀박물관 건설을 통해 해녀문화를 화석적으로나마 보존을 시켜 문화상품화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도해녀문화를 화석적으로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학교를 만들어 새로운 해녀를 양성하는 것이다.

영도에 해녀박물관이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영도가 제주해녀들이 육지로 출가물질을 처음으로 나온 장소이기 때문이다. 거리상으로 가까운 전라도 완도로 출가물질을 처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부산 영도로 물질을 처음 나왔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일반시민들은 해녀는 제주도에만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해녀박물관을 영도에 세운다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 이유는 제주도에 가지 않고도 해녀에 대해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셋째 영도에는 아직도 해녀들이 160명이나 물질을 하고 있다. 또한 영도해녀들에 대한 인터뷰와 문헌자료에 의해서도 해녀들이 영도에서 100년 넘게 물질을 해왔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또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제 영도해녀들은 대부분이 50~80대이다. 이대로 영도해녀문화를 보존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30년 쯤 뒤에는 영도해녀에 관한 사실은 책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영도해녀들이 배를 타면서 불렀던 민요들은 동력선이 나온 이후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여 지금은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다. 더 늦기 전에

29) 李善愛(2003), "海女の磯資源利用と信仰", 神奈川大學日本常民文化研究所 編, 歴史と民俗, pp.237~239

영도해녀문화에 대한 수집과 보존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집과 보존을 바탕으로 해녀박물관을 건설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녀 박물관은 오직 제주도에만 한 곳이 있다. 제주도의 해녀박물관은 제주만의 독특한 해녀, 어촌, 해양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003년 12월 23일 공사를 착공, 총 124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주요시설로는 4개의 전시실과 영상실, 전망대, 휴게실, 야외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6월 9일에 개관하였다. 이곳에서는 제주해녀들의 생존과 삶, 자존의 역사와 그들의 생활풍습, 무속신앙, 세시풍속, 해녀공동체 뿐만 아니라 제주민의 역사, 여성, 생업, 경제, 해양, 신앙, 연회 등 “해녀”를 주제로 제주도의 전통문화를 총망라하여 전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녀박물관을 영도에 건설하는 것은 영도해녀문화의 문화상품화와 영도해녀문화의 보존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수 있다.

해녀문화를 문화 상품화하는 두 번째 방안은 해녀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해녀 학교를 만들면 우선 두 가지의 이득이 생긴다. 첫 번째 새로운 해녀들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녀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두 번째 해녀학교로 인해 관광객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또한 지역민에게도 자랑거리가 된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올해부터 해녀학교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주해녀학교는 제주시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가 ‘한수풀해녀학교’라는 명칭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는 현재 30, 40대 34명이 입학해 해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곳에서는 4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해녀 도구의 사용법 및 잠수법, 호흡법, 수영법을 가르친다. 이론교육 후에는 소라와 전복을 직접 채취하는 실습이 이어진다. 이곳에는 경기도에서 와서 배우는 사람도 있다.

이곳에서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게 되고 수강자가 해녀가 되기를 원하면 지역 어촌계에 등록해 해녀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곳 학교의 교장인 귀덕2리 어촌계장인 임명호씨는 “제주 해녀들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가고 있어 젊은 세대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녀학교를 개설했다”며 “학생들 열정이 높아 졸업한 뒤 진짜 해녀가 될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³⁰⁾

30) 동아일보, 2008년 6월24일자

영도에서도 이와 같은 해녀학교를 개설한다면 현재 해녀고령화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해녀학교 과정을 단기반과 장기반으로 나누어 단기반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르쳐서 해녀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장기반은 진짜해녀를 만드는 과정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해녀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바다 속 쓰레기수거 경연대회, 해녀수영대회, 해녀복 패션쇼 등을 개최하여 해녀문화가 지속적인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할 수 있다.

8. 결 론

지금까지 제주 해녀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제주 해녀의 역사에 관해서는 해녀의 기원과 ‘출가물질’의 배경과 시기, 그리고 영도 해녀들의 내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현재에 관해서는 그들의 생활방식과 현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녀문화의 미래적 가치로서는 문화관광 상품화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일반인들은 영도해녀에 대해 놀라우리만치 관심이 적다. 그리고 영도해녀 자신들도 해녀라는 직업에 대해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영도해녀들은 자기 자식은 어떻게든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영도해녀들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영도해녀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영도 해녀 내지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영도해녀들에 대한 해녀들 스스로의 인식과 사람들의 인식도 또한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며 영도구는 훌륭한 관광상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 논문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도해녀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 다룬 지역이 영도에 한정되어 한반도의 다른 지역 해녀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를 차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자료>

1.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4), 『제주여성사 자료총서 V』
2. 남제주군(2006), 남제주군지 III권
3. 부산일보, 2005년 1월 27일자
4. 국제신문, 2007년 7월 3일자
5. 동아일보, 2008년 6월 24일자

<논문. 서적>

1. 강대원(1973),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2. 김영.양징자, 정광중.좌혜경 역(2004), “잠수의 역사와 출가물질의 요인”, 초
등교육연구 제8집, pp.6-26
3. 김영돈 외(1996), 제주의 해녀, 제주도
4. 김영돈(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5. 김영돈 외(1986), “해녀조사연구”, 耽羅文化 5호
6. 김영돈(1987), “해녀출가와 그 민요”, 白鹿語文 vol.3-4, p.18
7. 김영돈(1992), “제주해녀, 제주도언어민속노총”
8. 김영돈(1970), “해녀의 수익침해”, CHEJU UNIVERSITY JOURNAL vol.2
9. 김수희(2003), “일제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
10. 김정숙(1990), “제주도 해녀복연구”, 耽羅文化 vol.10
11. 고광민(1992), “나잡어로집단의 조직과 기술(I)”, 제주도언어민속노총,
12. 민경임(1964), “한국해녀의 역사 및 생활상태”, 梨大史苑, vol.5
13. 부성수(1996), 명분을 지키며 소신에 살며, 일월서각
14. 배경숙(1988), 한국여성사법사, 인하대학교출판부
15. 송재선(1995), 농어속담사전, 동문선
16. 이용한(2001), 사라져가는 토종문화를 찾아서 낀, 실천문학.
17. 오선화(1998), “죽변지역 이주잠녀의 적응과정 연구”, pp.20-21
18. 윤유녕(1997), Toward reviving the myth of woman's land, 제1회 섬학술회의
발표논문

19. 양원홍(1999),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
20. 원학위(1985), "제주 해녀어업의 전개", 地理學研究 vol.10
21. 좌혜경(2001), “일본 쓰가지마의 아마와 제주 해녀의 비교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 36권
22. 李善愛(2003), “海女の磯資源利用と信仰”, 神奈川大學日本常民文化研究所 編, 歴史と民俗

